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어휘 습득 연구*

김경령

(숙명여자대학교)

Kim, Kyung-Ryung. 2010. A Study of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Procedure by Foreign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8(4). 219-241. This study is about foreign students'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procedure. Thirty-three foreign students and ten native speaking Korean students who attend University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foreign students were in various majors at different universities. Both foreign and Korean students participated in reaction time, error rates and lectio quotient tests. They also answered four basic survey quest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tated below. There exist quite a few differences between foreign and Korean students' reaction time and error rates results. Native speakers of Korean showed quite stable results at cognizing various vocabularies which appeared alone or inside sentences while foreign students showed stable results when vocabularies appeared only within sentences. Second, foreign students were better at cognizing nouns than verbs. Sino Korean words seemed more difficult to acquire than foreign loan words or Korean native tongue words. Acquiring colloquial language seemed to be easier than literary language. Acquiring idiomatic expressions was also one of the difficult lexis for foreign students. Error rates, reaction time and lectio quotient results did not show proportionate relationships. This study implies that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be trained in a more systematic manner using various methods for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Key Words: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Sino Korean words, foreign loan words, Colloquial language, Idiomatic expressions.

* 본고는 2008년 숙명여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 논문이다.

1. 서론

어휘 습득이란 철자법, 발음, 문법, 형태, 어휘 형성, 어휘 조합, 의미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어휘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통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음성학적으로 형태론적으로 그 쓰임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또한 어휘에 내재되어 있는 함축적이고 내포적인 의미 더 나아가 문화적 정서가 녹아있는 의미까지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희, 2003; 안경화 2003 등).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어휘 지식의 힘으로 어휘 항목에 대한 정보는 통사적 관계의 이해를 돕는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능숙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의 차이는 어휘를 얼마나 해독할 수 있느냐 하는 어휘력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휘 인지력은 능숙한 읽기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어휘력과 독해력의 관계를 살펴 본 일부 연구에 의하면 어휘만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문맥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어휘를 대하는 것이 어휘 습득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 왔다(Cheng & Good, 2009; Allen, 1992; Skinner, 2000).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어휘를 개별적으로 가르치든 텍스트 안에서 가르치든 효과 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개별적인 어휘 학습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Loucky, 1997; Hunt & Beglar, 2005; Pia, 1990). 영어 교육 분야의 경우 제2언어 어휘 습득 발달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어휘 교수와 연결되어 발달되어 왔다.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특수 목적으로 수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은 62000 여명으로 추정된다(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2009). 국내외 교육 기관에서 대학 입학 목적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숙도는 토픽¹⁾ 시험으로 평가된다. 토픽 시험에서 적절한 급수를 부여받고 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어휘력 수준은 막상 국내 모국어 화자와 비교 해 볼 때 큰 폭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희, 2003; 안경화, 2003). 대학 수준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탄탄한 어휘력을 보유하여 전문 서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한국어 어휘를 어종별로 분류하면 25.9%에 해당하는 고유어, 58.5%에 해당하는 한자어, 4.7%에 해당하는 외래어, 10.9%의 기타(혼합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국립국어원, 2000). 대다수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전 언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어휘력 증진을 위해 교수법, 교재, 교과

1) 토픽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여 결과를 유학 및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연 2회 국외에서는 35개국 114 지역에서, 국내에서는 13개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www.topik.or.kr)

과정 등 힘써야 할 부분이 많다(조현용,2000; 한상미,2002).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력 및 효과적인 어휘 교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휘력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와 문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 항목을 난이도, 어종, 문체, 품사, 특징별로 나누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어휘들의 정확도를 알아보고 반응 시간 측정을 통한 언어 인지력 등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습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어휘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인 학생들이 문맥을 통해 어휘를 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어떤 차이나 나타나는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어휘 항목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어휘 습득 전략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2. 문헌 연구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2언어 어휘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문법, 발음 영역과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Pigadda & Shumitt(2006) 등에 의하면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접할 때 기억해내려고 일차적으로 애쓰는 것은 어휘 형성부에 대한 지식 혹은 이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의미라도 찾아내려 한다든가 철자 일부분의 뜻을 근간으로 전체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 등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처음 접한 어휘에 대해 발음 지식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일부 발음 지식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절 수 등을 고려하며 의미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어휘를 접할 때 시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선천론자에 의하면 단어는 문맥 안에서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맥에서 나타난 단어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추측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인지하고 찾아내는 과정을 중요한 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행동 주의자에 의하면 반복 연습에 의한 단어 훈련은 필수적이며 단어 인지는 반복이라는 조건 아래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단어가 해석되고 이해된다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야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문맥을 통한 단어 이해 및 습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제2언어 학습자들이 단어를 알아도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단어가 문맥에 나타나 쓰일 때 조금씩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행동주의자들의 가설의 약점이 지적되었다.

선천론자들이 주장하는 문맥화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여 친숙한 개념 작업을 근간으로 새로운 어휘 습득 연결을 생성해내는데 자연스러운 역할을 한다는데 설득력이 있다. 즉

문맥이 제공되지 않는 직접적인 어휘 교수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Krashen(1985)의 입력 가설에 의하면 어휘 습득은 L1이나 L2 모두 유사한 습득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입력 가설에 의하면 언어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야 하므로 학습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지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어는 읽기라는 형태를 통해 이해 가능한 입력이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인 어휘 습득이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에 의한 반복적인 암기화 작업은 선천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어휘를 배우고 습득하는데 적절한 추론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천론자들에 의하면 어휘의 문맥화는 제2언어습득에 놀랄 만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언어 이해, 생산 등의 작업이 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대화문 암기, 반복 연습 등의 행동주의자들의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어휘 교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즉 유의미한 상황 맥락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은 어휘를 문맥 안에서, 구의 형태로, 또는 언어, 관용 표현 등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너무나 방대한 수많은 단어들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암기식으로 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대한 양의 어휘 훈련법은 오히려 읽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Hsu (2006)에 의하면 추론의 과정은 체계적인 어휘 습득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언어 능숙도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억지로 꾸민 듯한 부자연스러운 문맥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어휘를 문맥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휘 발달이나 이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어휘를 따로 독립적으로 가르치고 외움으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몇몇 연구자들은 문맥을 제공하는 읽기 방법은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어휘 습득을 하는데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문맥에서 어휘 의미를 추론해 내는 것과 실질적이고 정확한 의미 자체를 습득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이 지적하기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맥 속에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사전을 통해 정확한 뜻을 찾는 작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학습자들이 사전을 찾아 정확한 의미를 해독하기 보다는 추론의 과정만을 통해 어휘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나아가 사전을 찾아 재확인 하는 작업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Glowacki, Lanucha & Pietrus, 2001)은 읽기를 통한 어휘 습득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의미는 습득될 수 있지만 이해 적용 범위는 다른 폭이라 한다. 광범위한 읽기는 어휘 확장을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과정이지만 모든 유형의 어휘 습득에 일관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측면의 어휘 유형 및 그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다르게 취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Cheng & Good(2009)은 대만 국립대학에 재학중인 2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한 어휘력 테스트를 근간으로 실험 연구를 하였다.

피험자들은 반복 훈련을 받은 어휘들에 대해 어휘력 테스트에서 현격하게 높은 테스트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독해력 테스트에서는 다른 그룹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휘력에 대한 지식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다. 어휘습득은 부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밟는다. 어휘를 습득하는 것은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어휘력과 독해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중 읽기 속도, 자동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Huckin & Coady, 1999; Peitz & Vena, 1996). 빠르고 신속하게 어휘 의미를 인지하는 능력은 학습자가 어휘를 자주 대하고 사용함으로써 신장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논문에서는 목표 어휘가 나와 있는 짝막한 단문 형식의 글을 자주 접하게 하면 어휘 인지 속도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자로 적힌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이해하며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독해력의 주요 부분으로 단어가 시각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문맥과 결합하여 이해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접근 가설(Onifer & Swinney, 1981)에 의하면 읽기는 문자로 쓰인 단어 형태를 빠르고 자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빠르게 단어를 훑어 읽어 내려가며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은 해독과 이해의 과정에서 인지 속도를 중요시 여긴다. 빠른 해독의 속도는 문자로 적힌 단어들에 대한 친근성과 익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단어 해독력은 독해력 분야에서 주의를 끌었고 앞뒤 문맥과 연결하며 의미를 파악해내는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cfalls(1996)의 연구 등에 의하면 성인 학습자의 경우 추상 어휘 인지 반응 시간이 구체어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구체어가 추상어보다 형상화하는 작업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어는 강력한 형상화 작업이 가능한 반면 추상어는 의미를 이해하고 인지하기 어려우며 이 현상은 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추상성이 어휘 인지력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어휘력 테스트를 근간으로 어휘의 의미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도 반응 시간 측정을 통해 인지 속도 등을 어휘의 난이도, 어종, 문체, 품사, 특징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33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현재 한국에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평균 한국어 학습 기간은 20.5개월이다. 피험자들의

전공은 문학, 일본어, 디자인, 홍보방송 등 다양하였다. 피험자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인 유학생 기초 정보

피험자	전공	학습 기간	성비	나이	피험자	전공	학습 기간	성비	나이
A	사회과학	12	여	21	R	사회복지	25	여	20
B	사회과학	24	여	22	S	경영	27	여	23
C	경영	18	남	22	T	사회과학	21	남	22
D	사회과학	16	여	20	U	사회복지	18	여	21
E	사회과학	15	여	22	V	사회복지	21	여	25
F	사회과학	15	여	21	W	사회과학	26	여	23
G	경영	18	여	25	X	경제학	18	여	20
H	사회과학	18	여	18	Y	사회과학	17	여	21
I	정의	15	여	24	Z	경영	14	여	22
J	사회과학	25	여	22	AA	경영	21	여	21
K	인문	15	여	21	BB	사회과학	18	남	20
L	사회복지	24	여	25	CC	사회과학	18	여	23
M	일본어	24	여	26	DD	인문	25	여	25
N	디자인	12	여	24	EE	인문	18	여	24
O	사회복지	54	여	26	FF	경제학	18	여	22
P	사회과학	19	남	23	GG	신문방송	18	남	20
Q	사회과학	21	여	23					

한국어가 모국어인 10명의 피험자들 역시 한국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수 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22.3세이다. 모국어 화자가 실험에 참여한 이유는 본 어휘 테스트 항목에 대한 반응 시간 및 정확도에 대한 기준 점수를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모국어 화자는 한국어 어휘 목록 테스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와 안정된 반응 시간 결과를 보여 어휘 자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정해진 시간과 날짜 및 장소에 와서 어휘 테스트와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1차적으로 어휘 테스트에 응하게 하였고 실험 과정에 대해 연구 보조원들이 상세히 설명하였다. 테스트에 응하기 전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어휘 테스트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어휘 테스트 이후 설문 조사와 어휘 전략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후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독해력 측정 테스트에 응하였다. 독해력 측정 테스트는 평균 9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렸다. 전체 실험 과정은 연구보조원들의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어휘 테스트 항목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휘 단계의 난이도는 말뭉치 출현 빈도수에 따라 정렬하여 200개의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00개의 어휘 항목들은 다시 문

장 속에 출현시켜 200개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200개의 어휘 항목은 난이도별, 어종별, 문체별, 품사별, 특징별, 형태별로 나누어 분류²⁾된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문금현 외, 2005).

컴퓨터 프로그램³⁾은 제시된 각각의 어휘 항목에 대해 정확도와 반응 시간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험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총 400개의 어휘와 문장에 대해 '안다' 또는 '모른다'로 답하였다. 어휘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피험자들은 독해력 측정을 위해 낱말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독해력 테스트⁴⁾에도 역시 일괄적으로 응하였다. 어휘 전략에 사용에 대한 문항은 Nagy & Scott (1989)의 연구에서 어휘 전략 부분만을 발췌하여 본 연구를 위해 간단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

전체 데이터 자료를 근간으로 한국인 대학생 피험자 그룹과 외국인 유학생 그룹 간의 언어 정확도(Error Rate)와 반응 시간(Reaction Time)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상이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은 '외국인 유학생 그룹과 한국인 학생 그룹 간의 평균 언어 정확도는 유사할 것이다'와 '외국인 유학생 그룹과 한국인 학생의 평균 반응 시간은 유사할 것이다'로 하였고,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분석 결과 언어 정확도와 반응 시간 모두에서 p-value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언어 정확도 및 반응 시간과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정확도 및 반응 시간과 다르다는 것은 추론 분석 결과인 <표 2>와 <표3>과 같다.

-
- 2) 어휘 테스트 항목들은 파일럿 스터디로 사용된 문금현 외(2005)의 것을 사용하였다.
 - 3) Reaction Time, Error Rate 프로그램은 파일럿 스터디로 2005년 새터민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으로도 사용해본 적이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검증을 받았다.
 - 4) 독해력 테스트는 한국어 화자의 독해 지수 측정 개발로 지난 15년간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낱말어휘정보처리 연구소에서 개발된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LQ지수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낱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http://www.wordnet.co.kr>)

표 2. 한국인 대학생 그룹과 중국인 유학생 그룹 간의 언어 정확도 추론 분석

t 검정 정확도(Error Rate)	중국인 유학생 (Error Rate)	한국인 학생 (Error Rate)
평균	77.58	99.86
분산	97.55	0.03
관측 수	33	8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2	
t 통계량	19.50	
P(T<=t) 단측 검정	1.43E-14	
t 기각치 단측 검정	1.69	
P(T<=t) 양측 검정	2.87E-14	
t 기각치 양측 검정	2.04	

표 3. 한국인 대학생 그룹과 중국인 유학생 그룹 간의 반응시간 추론 분석

t 검정 반응시간(Reaction Time)	중국인 유학생 (Reaction Time)	한국인 학생 (Reaction Time)
평균	2.78	1.01
분산	1.59	0.03
관측 수	33	8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6	
t 통계량	7.76	
P(T<=t) 단측 검정	1.68E-09	
t 기각치 단측 검정	1.69	
P(T<=t) 양측 검정	3.36E-09	
t 기각치 양측 검정	2.03	

위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한국인 대학생 그룹과 외국인 유학생 그룹의 언어 정확도 및 반응 시간은 추론 분석을 통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의 결과만을 집중적으로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들 그룹의 결과가 한국인 대학생 그룹과 다르다는 것을 일일이 추론 분석하는 것은 잉여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후에서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결과와 관련한 추론 분석은 하지 않고, 중국인 유학생 내에서의 결과만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대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어휘를 문맥 내(Er=99.92)에서 물어보거나 혹은 어휘 자체를 물어보는 테스트에서(Er=97.78) 동일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즉 문맥을 통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도 어휘 자체만으로 충분히 그 뜻과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반면 외국 학생의 경우 어휘를 문맥 내($Er=82.44$)에서 물어 보았을 때가 어휘 자체($Er=72.77$)를 물어보았을 때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문맥에 의존하여 어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어휘를 문맥 내에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일어나면서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모국어 화자의 반응 시간은 어휘를 문맥 내($Rt=1.0$)에서 물어볼 때나 어휘 자체($Rt=1.0$)를 물어볼 때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외국인 피험자의 경우 어휘를 인식할 때 문맥 내($Rt=2.28$)에서 인식하는 반응시간이 어휘 자체($Rt=1.70$)를 인식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다. 외국인 피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휘를 문맥 안에서 인식할 때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을 인식할 때 모국어 화자와 달리 오랜 해독의 과정을 거쳐 어휘 의미를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문맥5)에 의한 정보 제공이 있고 없음이 어휘를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은 외국인 피험자의 독해력 지수와 정확도, 반응 시간과의 관계성을 본 그림이다. 외국인 피험자들의 독해력 지수 점수6)는 700점에서 1000점까지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다. 한국어 독해 실력이 있소 개인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어휘 정확도가 높아도 그것이 독해력 지수와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는 결과가 발견된 점이다. 낮은 독해력 지수 700점대를 받은 피험자가 어휘력 검사에서는 높은 어휘 정확도($Er=84.00$)을 받았고 가장 낮은 어휘 정확도($Er=71.40$)를 받아도 독해력 지수는 900점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단어 의미를 하나씩 안다 해도 문맥을 이해하는 독해력과 직접 연관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독해력 지수가 높아질수록 어휘를 인지하는 반응 시간은 길어졌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맥 속에서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추론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5) (가)는 단어 자체를 물어 보았을 때이고 (나)는 문장 안에서 물어 본 경우이다.

가. 가격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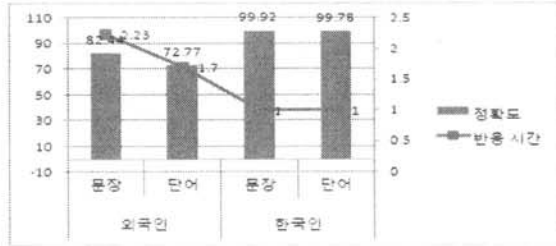
(모국어 화자: $Er=99.90$ $Rt=1.0$ 외국인 피험자 $Er=76.41$ $Rt=4.36$)

나. 그 회사는 비싼 시계의 가격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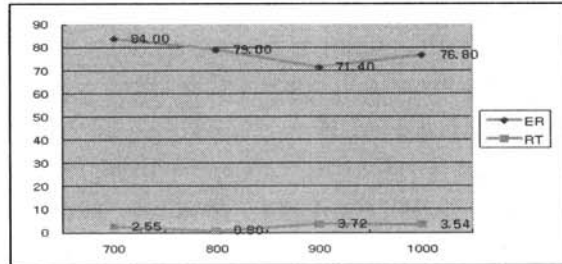
(모국어 화자: $Er=99.91$ $Rt=1.0$ 외국인 피험자 $Er=97.44$ $Rt=6.85$)

6) 모국어 화자의 경우 성인 1등급의 경우 1320-1850사이의 점수 분포가 나왔다 (날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2007).

<그림 1> 외국인 피험자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정확도와 반응 시간



<그림 1-1> 독해력 지수와 언어 정확도, 반응 시간



ER= 정확도(Error Rate) RT=반응시간(Reaction Time)

다음은 어휘를 품사별로 명사와 동사로 나누어 그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난 단어’로 사물의 실체를 가리킨다. 한국어의 명사는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하며 형태의 변화가 없다. 반면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며 문장의 서술 기능을 주로 한다. 한국어 동사는 문장에서는 기본형이 쓰이지 않고 활용 형태로 쓰이며 높임법을 가질 수 있고 시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동작상을 나타내거나 조사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명사와 동사는 이처럼 형태와 기능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품사이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문맥에서 명사(Er=76.72)보다 동사(Er=83.78)를 인식할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반응 시간의 경우 동사(Rt=3.52)를 인지할 때가 명사(Rt=2.57)를 인식할 때보다 반응 시간은 짧았다.

외국인 피험자들이 문맥에서 동사(가)에 해당하는 어휘를 해독할 때 문맥 정보를 통한 추론

7) 문장 속에서 접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정확도 편차가 유난히 크게 나타난 동사로 ‘검소하다’와 ‘데모하다’가 그 예이다.

가. 검소하다 (외국인 피험자 Er=50.51 Rt=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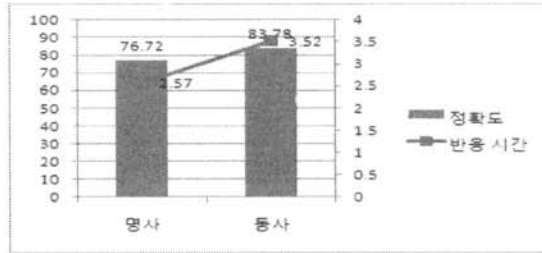
나. 남녀 대학생들의 옷차림이 매우 검소하다 (외국인 피험자 Er=81.54 Rt=4.85)

다. 데모하다 (외국인 피험자: Er=22.82 Rt=2.93)

라. 많은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데모한다. (외국인 피험자: Er=63.85 Rt=3.87)

의 시간이 좀 더 오래 소요 되었지만 정확도는 명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의 경우 문맥 정보가 주어져도 추론을 통한 해독이 동사보다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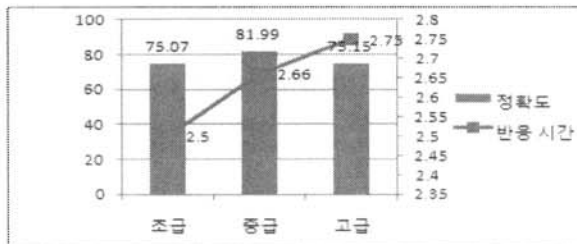
〈그림 2〉 명사와 동사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



어휘 단계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외국인 피험자는 중급 단계($Er=81.99$) 어휘에 대해 가장 높은 언어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고급단계($Er=75.15$) 어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난이도가 있는 고급 단계 어휘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인 반면 초급 단계 어휘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지 않게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반응 시간은 각 어휘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편차가 큰 편은 아니었다. 외국인 피험자는 초급($Rt=2.50$), 중급($Rt=2.66$), 고급($Rt=2.75$) 순으로 반응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인지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그림 3〉 초급, 중급, 고급 어휘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



한국어 어휘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면 한자어, 외래어와 고유어 삼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대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고유어는 의미의 폭이 넓고 상황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파생의 의미를 획득하는 특징이 있다. 고유어의 의미 확대는 의미의 대응에 따라 한자어와 일대다 대응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한자어는 형식만 한자로 나타날 뿐 중국에서 들어온 말,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된 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말 등이 있다. 고유어와 한자어는 오랜 세월이 걸쳐 우리말 안에서 공존해 오는 동안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 개의 고유어와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폭넓은 대응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은 의미 전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일상어인지 문장어인지, 대상의 구체성인지 추상성인지 등에 대한 변별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피험자에게는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자유롭게 문맥을 통해 어휘 의미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는 외래어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영어 어휘가 우리말 어휘에 많이 유입되었다. 한자어, 외래어와 고유어 중 외국인 피험자들은 한자어에 대한 정확도($Er=75.17$)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외래어($Er=80.94$)와 고유어($Er=81.82$)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주로 개념어나 추상어를 표현하는데 쓰이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에서 정밀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습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래어도 상대적으로 고유어에 비해 습득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이나 '업그레이드' 등의 음역 차용어를 매우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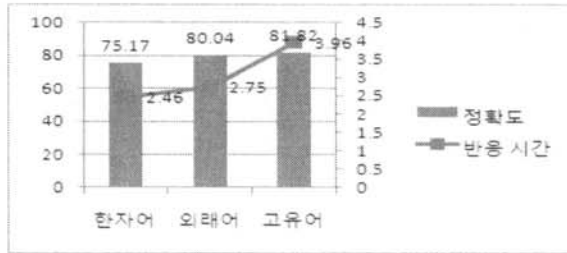
반응 시간은 고유어($Rt=3.96$)가 가장 오래 걸렸고 외래어($Rt=2.75$)와 한자어($Rt=2.46$)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반응 시간과 정확도 간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정확도가 높아졌다.

외래어나 한자어의 경우 전반적으로 20% 정도의 낮은 정답률⁸⁾이 나타났다. 반면 고유어의 경우 정답률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습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어는 한국어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어휘 교육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중섭(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외국인 학생이 신문이나 전문 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수준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오미남(2002)의 연구에서도 한자의 이해가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8) 외래어, 한자어 그리고 고유어 중 특히 정답률이 낮은 어휘 항목들을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노하우까지 알려줬다 ($Er=41.28/62.31$ $Rt=2.55/2.79$)
 나. 시험 성적이 게시판에 붙어 있다 ($Er=18.0/42.20$ $Rt=5.33/5.90$)
 다. 그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다 ($Er=52.0/83.20$ $Rt=2.30/2.45$)

(단어/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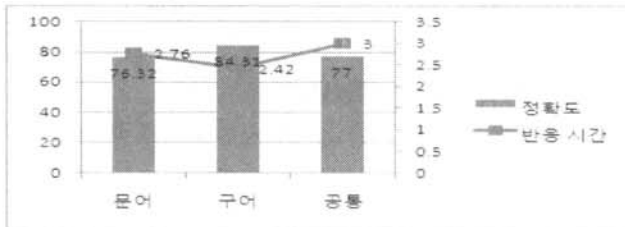
(그림 4) 한자어, 외래어 및 고유어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



외국인 피험자들의 구어, 문어, 구어와 문어 공통 항목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대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구어($Er=84.31$)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구어와 문어 공통($Rt=77.0$), 문어($Rt=75.32$)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어보다 구어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두 항목 사이에 나타나는 표준 편차도 큰 것으로 보아 피험자들 대부분 구어보다 문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시간은 공통($Rt=3.0$), 문어($Rt=2.76$) 그리고 구어($Rt=2.42$) 순으로 나타났다. 반응 시간의 경우 구어와 문어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구어가 문어보다 약간 짧은 반응 시간을 보였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실험에 응한 모든 피험자들은 학문 목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그들에게 문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풍부한 읽기 자료를 통해 수준 높은 문어에 대한 어휘 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학문 목적 고급 단계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 읽기 교육 과정의 내용 및 구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문어, 구어 및 공통 항목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



9) 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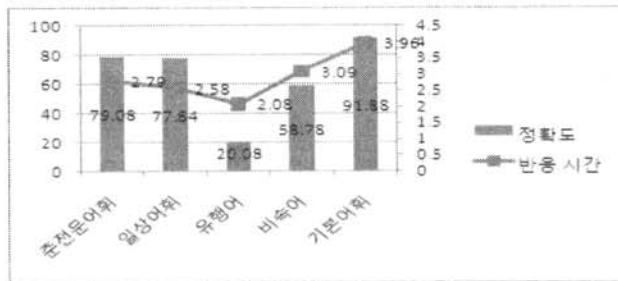
- 가. 그 사람이 이번 경기에서도 일등할 것은 뻔하다. ($Er=55$ $Rt=1.73$)
-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회사를 제졌다. ($Er=79$ $Rt=1.76$)
- 다. 철수가 농담을 하면 항상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Er=42$ $Rt=2.64$)

외국인 피험자의 기본 어휘, 한국어 준전문 어휘, 일상 어휘¹⁰⁾, 비속어와 유행어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대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기본어휘 (Er=91.92)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준전문어휘(Er=78.08),일상어휘 (Er=77.84), 비속어(Er=58.78), 유행어(Er=20.0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험자에게 비속어나 유행어는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나타났다. 비속어는 친근감이나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는 속된 말이다. 유행어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언어 행위이다. 이렇게 비속어나 유행어를 모국어 화자처럼 자유롭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인 외국인 학습자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시간은 기본어휘(Rt=3.96), 비속어(Rt=3.09), 준전문어휘(Rt=2.79), 일상어휘 (Rt=2.58) 비속어(Rt=3.09), 유행어(Rt=2.08)순으로 나타났다. 기본 어휘의 경우 정확도가 가장 높지만 반응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준전문어휘, 일상어휘, 유행어, 비속어 및 기본어휘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



외국인 피험자들의 사자 성어, 관용구¹¹⁾, 단어 등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은 <그림 7>과 같다.

외국인 피험자들의 사자성어, 관용구, 단어 등에 대한 정확도는 단어(Rt=77.90), 사자성어(Er=72.69), 관용구(Rt=65.18) 순으로 나타났다. 반응 시간의 경우 관용구(Rt=2.52), 단어 (Rt=2.68), 사자성어(Rt=2.7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자성어¹²⁾나 관용구 습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덕자(1997), 전해영(2001)

10) 일상어

가. 회비를 모아서 큰일에 쓸 겁니다. (Er=30.0, Rt=2.91)

나. 이 시계는 건전지 4개가 필요합니다. (Er=24 Rt=1.94)

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이 춥다. (Er=33 Rt=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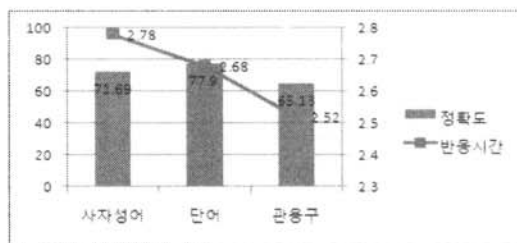
11) 두 개 이상의 단어들 이 결합되어 내용적으로 제3의 의미로 특수화 되어 관용표현, 관용구 속어, 관용어 등으로 일컫는다(임지룡,1992). 본고에서는 '관용구'로 정의한다.

12) 사자 성어

가. 검찰의 불시검문으로 차가 많이 밀렸다. (Er=31.03/58.72 Rt=2.45/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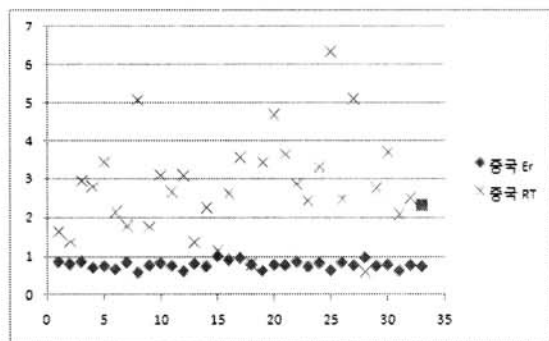
등에 의하면 관용 표현이 학습 동기 유발이나 성취도 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관용어 목록은 어휘력 증대를 위한 도구가 되며 다양한 표현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문화나 사고 구조가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 목적으로 고급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림 7) 사자성어, 단어 및 관용구에 대한 정확도와 반응 시간



외국인 피험자의 어휘에 대한 반응시간과 정확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그림8>과 같다. 전반적으로 자명하게 비례나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즉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휘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정확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피험자들이 문맥을 통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해독 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반응 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반응 시간 결과에서 피험자들이 개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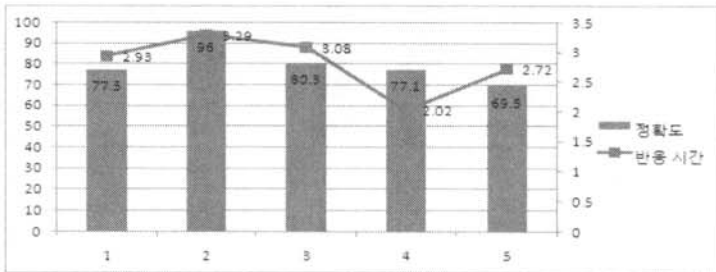
(그림 8) 어휘 정확도와 반응 시간



- 나. 시험에 떨어져 의기소침해졌다. (Er=91.54/57.18 Rt=2.68/2.67)
- 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다. (Er=76.41/Er=58.97 Rt=2.69/2.39)
- 라.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을 받는다. (Er=90.77/Er=70.51 Rt=3.19/3.45)

외국인 피험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전략 사용 빈도수와 정확도, 반응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외국인 피험자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된 어휘 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알고 있는 한국 단어를 여러 방식으로 사용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학습자일수록 언어 정확도($Er=96.0$)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응 시간($Rt=3.29$)도 가장 길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휘 전략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언어 정확도는 점차 증가되었고 반응시간은 오래 걸렸다.

(그림 9) 전략 사용과 정확도 및 반응 시간



P.S 1. 새로운 한국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 나는 이 단어들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 2.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들 여러 방식으로 사용해 본다. 3.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접두사, 어간, 접미사 등 이미 알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생소한 한국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단어를 모르면 그럴 듯하게 내 나름대로의 단어를 만들어 낸다. 5. 적절한 한국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뜻이 동일한 단어나 구를 대신 사용한다.

5. 결론

본고를 통해 발견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피험자의 경우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어휘를 문맥 내에서 접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접하는 경우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어휘 의미를 파악할 때 문맥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단어를 개별적으로 접할 때나 문장을 통해 접할 때나 반응 시간에 있어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매우 빠른 속도로 문맥을 읽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피험자들의 경우 추론의 과정을 거쳐 문맥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모국어 화자에 비해 2.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문맥 속에서 명사와 동사를 접할 때 동사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추론해 내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사가 동사에 비해 문맥을 통한 의미 추론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중 외국인 피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한자어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외래어 교수 영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고급 단계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어 교수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 피험자들은 구어보다 문어 관련 어휘를 더 생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한국어 교재는 초급의 경우 구어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지만 단계별로 고급 문어 자료를 다양하게 접하고 어휘를 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외국인 피험자들은 사자성어 및 관용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험자들 중 어휘 전략 사용이 활발할수록 어휘 정확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언어 정확도와 반응 시간은 비례 관계를 보였다. 즉 문장 속에서 어휘 의미를 추론해내는 과정 중 시간이 좀 걸린다하더라도 어휘 의미를 파악해내는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직접적인 어휘 교수를 학습 초기에 받았으나 단계가 높아지면서 간접적인 어휘 교수 방법으로 학습을 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 교사는 어휘를 가르칠 때 직접과 간접의 방법을 모두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사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소개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어휘교수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단편적인 어휘 정보만을 제공하는 일반 사전의 한계를 알고 있을 것이다. 유의어, 동의어 등이 제시되어 있는 분류 사전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어휘를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양질의 텍스트를 다량으로 읽어나가는 것임은 본고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역시 개별 단어를 직접적으로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단계별로 어휘 교수는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초급 학습자들은 간명하고 정확한 일대일 대응관계 어휘 교수가 필요하지만 텍스트 해독의 추론력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고급 학습자에게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본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Huckin and Coady(1999)는 외국인 학습자가 화용적으로 능숙하다는 것은 어휘 습득과 읽기가 동시에 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접근 방법은 학습자들이 자동적으로 문맥에서 새로운 단어를 즐거움을 가지고 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휘적 지식은 간단한 이분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어휘적 지식이 인식의 초기단계에서 생성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어 교사는 문맥 안에서 다양하게 어휘가 드러내는 의미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지만 익숙한 구성 및 내용 안에서 소개하여 이해력을 높여주거나 주제별 항목화 작업을 통해 어휘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복습만이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편찬백서*, 서울; 계문사.
- 김중섭. (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9(1), 113-133.
- 오미남. (2002). 비한자권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 제12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문금현. (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11(2), 21-62.
- 문금현 외. (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유덕자.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희. (2003).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이중언어학*, 22. 301-320.
- 안경화. (2003). 중간 언어 어휘론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중언어학*, 23. 167-186.
- 전혜영. (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 181-200.
- 조현용. (2000). 어휘중심 한국어교육방법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한상미. (2002). 학습자 자율성에 기초한 한국어 어휘 교육 사례 연구, *한국어교육*, 13(2), 279-306.
- Allen, F. H. (1992).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vocabulary information analysis*. ERIC Clearing hous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0 862)
- Cheng Y. H. & Good, R. L. (2009). L1 glosses: Effects on EFL learners reading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retention. *Reading a foreign language*, Vol 21.(2), 119-142.
- Glowacki, D., Lanucha, C. & Pietrus., D. (2001). *Improving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direct and indirect teaching*. Master of arts action research project. Saint Xavier University and skylight professional development. ERIC Clearing hous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53542)
- Hunt. A., & Beglar, D. (2005). A framework for developing EFL reading vocabulary.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17(1), 39-78
- Huckin, T. & Coady. J. (1999).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in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21(2). 65-74.
- Hsu, T. (2006). *Teaching English lexically: The university word list is a good start*. Paper presented at the TESOL conference Taiwan, April 8.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92898)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 (pp.2-3). Longman Pub.
- Loucky, J. P. (1997). *Designing and testing vocabulary training method and materials for Japanese college study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ual Review of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8600)
- McFalls, E. (1996). Influence of word meaning on the acquisition of a reading vocabulary in second grade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8(3). 235-250.
- Nagy, W. E. & Scott, J. A. (1990). *Word Schemas: What do people know about words they don't know?* Technical report No.456.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05591)
- Peitz, P. & Vena. P. (1996). *Vocabulary teaching strategies: effects on vocabulary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at the first grade level*. Master of arts. Kean college of New Jersey.
- Pigada, M. & Shumitt, N. S. (2006). Vocabulary acquisition from extensive reading: A case study, *Reading of Foreign Language*. V. 18(1), 75-98.
- Pia, H. D. (1990). *Vocabulary acquisition in context reconsidered: The effect of word type and exposure level on the learning of unknown words*.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29897)
- Onifer, W. & Swinney, D. A. (1981). Accessing lexical ambiguities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Effects of frequency of meaning and contextual bias. *Memory & Cognition*, 9(3), 225-236.
- Scott, K. B. (1995). *Vocabulary acquisition: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implications for diverse learners*. Technical report No 14. National center to improve the tools educators. Special education program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86861)
- Skinner, R. (2000). *Contextualization of vocabular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mphasis on the native approach with comparison to the behavioris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50593)

김경령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전화: 02-710-9305

이메일: krkim@sookmyung.ac.kr

Received: 30 September, 2010

Revised: 20 November, 2010

Accepted: 12 December, 2010

부록 A

어휘	정확도	반응시간	어휘	정확도	반응시간
가격인하	0.48	1.97	샤프하다	0.61	2.03
가이드	1.00	7.52	서빙	0.94	2.15
감봉당하다	0.76	4.39	성묘	0.91	2.45
개인레슨	0.67	5.73	세계화	0.76	2.30
게시판	0.18	5.33	색시하다	0.91	3.67
결제	0.79	4.61	소스	0.88	3.82
경력	0.79	5.03	슈퍼마켓	0.24	2.76
고정관념	0.52	3.00	스카웃	0.82	4.09
골키퍼	1.00	1.94	스티커	0.21	4.45
공개하다	0.97	2.15	슬럼프	0.61	2.12
과외	0.97	2.18	신신당부	0.97	1.88
관행	0.97	3.85	싸이코	0.94	2.58
교사	0.48	2.77	아이큐	0.39	2.91
교통사고	1.00	2.42	안달이다	0.52	2.30
긴장하다	0.94	4.88	안성맞춤	0.39	2.94
노하우	0.45	3.18	엑세서리	0.21	2.39
다이어트하다	0.97	1.76	앵콜	0.94	1.42
대출	1.00	1.61	업그레이드	0.94	3.24
테모하다	1.00	1.91	에스컬레이터	0.91	3.48
동아리	1.00	3.15	에티켓	0.79	1.67
뒤풀이	0.73	4.45	여성용	0.94	2.45
디스켓	0.45	2.06	연예인	0.70	2.97
라이벌의식	0.97	1.61	연중무휴	0.18	2.21
마인드	1.00	2.09	예비군훈련	0.91	2.52
맞벌이	0.94	3.12	오리엔테이션	0.48	2.97
모듬별	0.58	2.36	왕따	0.85	2.27
모범생	0.94	3.70	우회전	0.88	1.79
바가지(요금)	0.42	2.64	워크숍	0.97	1.64
보디การ์ด	0.88	2.76	월드컵	1.00	1.36
부부동반	0.94	3.39	유학	1.00	2/09
불시검문	0.24	3.03	유행	0.79	1.61
브랜드	0.91	1.64	유흥업소	1.00	2.00
뽕소니치다	1.00	2.79	의기소침	0.79	2.63
편하다	0.55	1.73	의료보험	0.24	2.27
사사건건	1.00	3.61	이사	0.97	1.97
사십구제	0.58	4.09	익명	0.94	1.55
사이버	0.55	2.03	인사불성	0.97	1.67
사표	0.79	1.91	독신생활	0.52	2.06
삭제하다	0.94	3.15	드라마	0.97	2.70
인터넷	0.97	2.48	리포트	0.36	2.52
일기예보	0.85	1.82	마케팅	1.00	1.27
자격지심	0.85	3.03	면허증	0.97	2.70
자율	0.61	1.58	명함	0.36	2.52

작성하다	0.97	1.33	모델하우스	0.76	2.18
전산화	0.94	1.21	벌금	0.85	2.73
정보화	0.97	4.30	보너스	0.91	1.61
조강지처	0.45	1.91	보일러	0.33	2.24
처벌	1.00	2.27	봉고차	0.94	1.64
첨단	0.73	1.55	부동산	0.94	2.03
출금	1.00	2.76	분양	0.94	4.06
출장	0.36	2.06	비디오	0.61	2.24
컴플렉스	0.39	2.03	빨대	0.55	1.39
쿠폰	0.58	2.36	상당	0.97	2.00
킬로그램	0.61	2.00	상품권	0.39	2.30
테이프	0.91	2.55	샤워	0.94	2.33
톨게이트	0.52	2.33	서비스	0.67	1.58
투자하다	0.58	2.97	세일	0.73	1.67
파출부	0.48	2.00	소프트웨어	0.88	2.70
폭우	1.00	2.12	수풀	0.52	1.82
프라이버시	0.67	2.94	수표	0.73	2.55
플랜카드	0.33	2.52	스트레스	0.64	1.33
햄	0.27	2.48	스포츠	0.91	2.27
홈쇼핑	0.58	3.12	시스템	0.61	1.76
홈페이지	0.58	2.70	신세대	0.94	2.33
화장실	0.24	2.70	실명제	0.18	1.82
환송회	0.48	3.36	썰렁하다	0.42	2.64
회비	0.30	2.91	아르바이트	0.70	1.76
휴게실	0.30	2.58	애니메이션	0.97	1.48
건배	0.24	2.85	앰블런스	1.00	2.21
건전지	0.24	1.94	에어백	0.76	1.91
검소하다	0.94	1.45	연락처	0.67	1.61
계모임	0.97	1.21	올림픽	0.52	2.67
고객	1.00	2.58	음성메시지	0.52	2.33
곱빼기	0.76	2.42	응급실	0.48	1.88
공짜	0.67	4.55	이쑤시개	0.94	1.36
공평하다	0.73	3.58	이어폰	0.97	1.24
과음하다	0.30	1.91	인턴	1.00	0.82
국산품	0.88	1.97	잡담하다	1.00	1.36
근사하다	0.79	2.58	적자	0.79	1.55
당근이지	0.48	2.85	주차장	0.85	1.36
지하철	0.20	2.64	오피스텔	0.79	1.61
총선	0.45	1.70	유통기한	0.94	0.97
치료비	0.85	2.79	임시휴일	0.97	2.18
카드	0.64	1.64	잡채	0.76	1.24
카운터	0.94	1.76	전	1.00	1.30
커뮤니케이션	0.88	2.97	제끼다	0.79	1.76
커플	0.36	1.67	제출하다	0.30	2.61
탕수육	0.88	1.70	종업원	0.73	4.55
티켓	0.79	1.18	진통제	0.85	2.88

프로	0.91	2.42	칭칭장	0.64	3.00
프로포즈	0.58	2.15	팀	0.91	2.76
햄버거	0.67	1.94	퍼센트	0.76	2.88
헤어스타일	0.33	3.15	프로그램	0.76	2.64
헛갈리다	0.33	2.21	하수도	0.91	3.33
회식	0.64	1.67	부담스럽다	0.91	2.06
횡단보도	1.00	1.91	세대차이	0.91	2.06
흡연	0.76	2.73	센티미터	0.70	1.52
룸메이트	0.55	2.61	시누이	1.00	5.64
못마땅하다	0.79	1.27	시댁	0.97	1.12
반말	0.73	1.76	안사돈	1.00	2.42